

“중진 보장용” vs “진보 정치인 육성용”

민주 “개혁 하려는 것이지 개악 하려는 것 아냐”

정의 “우리 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6일 선거법을 놓고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의원 재선 보장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맞서면서 민주당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상호간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4+1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의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과거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으로 (당초 수정안인 75석보다) 줄어든 마당에 석패율제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깎을 뺐는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선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며 “우리 (정의당) 출마자들이 나서면 승부의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거대양당이 더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까지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연동형 캡(cap·상한선)’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출마 선언 “무기력한 광주 정치, 청년정신으로 타개”

정준호 변호사, 광주 북갑 출마 선언

정준호 변호사는 16일 “무기력한 광주 정치를 청년정신으로 타개하겠다”며 내년 21대 총선에서 광주 북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은 늘 위대했지만 지금의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고 꿈을 설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은 목소리에도 한없이 너그러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오만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며 “물상식에는 한없이 엄격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지역 정치문화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하는 광주 △책임 있는 광주 △재도전하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 △소통하는 광주 등을 광주 정치의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호남과 광주 위해 일할 기회 꼭 달라”

하현식 한국당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출마 선언

하현식 자유한국당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잡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내년 21대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과 광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익 앞에 여야가 없듯 지역발전에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균형을 이룰 때 광주와 호남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화합과 통합으로 지역주의 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며 “광주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광주 미래의 틀을 짜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혁신, 새 변화 만드는 정치인”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 동남을 출마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6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하는 혁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든든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촛불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세력이 여의도에 남아있는 한 우리의 촛불혁명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금수저들의 대물림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나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정의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광주형 일자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기틀을 완성한 문화경제 전문가”라고 자평하고 “문화도시 광주의 자존심을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文의장, 최악 국회의장...더이상 치졸한 행동 말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화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역대 국회의장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도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려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최악”이라며 “더이상

장이 정부·여당 앞잡이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를 그만한 실 분이 왜 이러는 것일까”라며 “아들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오전 11시에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통제를 했다”며 “유인태 사무총장이 혼자 했겠냐. 국회의장이 허락해서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위성 정당 사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선거법을 만지작거리는데 점점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며 “그야말로 의석 한 두 개를 얻자고 진흥당 싸움, 밥고릇 싸움을 하는 추세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文의장, 정부·여 앞잡이 노릇...아들 세습공천 위해 이러나”

“여-위성정당 선거법 놓고 자중지란...文정권 남탓 고질병”

치졸한 행동을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 당시 보지 않았다. (문 의

였다. 세습 공천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아들도 그 지역·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나가겠다고 뻔뻔하게 얘기한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